이주노동자 위험 높이는 작은 사업장의 작지 않은 문제들

임용현 상임활동가

용현: 단원FM 특집방송 “작은사업장 이주노동자에게도 안전할 권리를”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두 분은 지난 특집방송에서 어떤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

미숙: 마문님이 “안전을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대목이 기억에 남았어요. 현장에 적응할 단계나 교육도 없이 바로 다음 날 기계 앞에 투입되고,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자의 시선과 압박감 때문에 다쳐도 말을 못 하고 간단한 약만 바르며 참아야 했던 경험담은, 우리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일할 ‘사람’이 아닌 단순 ‘인력’으로만 취급해 왔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안전을 갖고 장난치지 말라는 절박한 외침을 가슴에 새기며, 위험할 때 거부하고 도망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일터,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행동의 필요성을 깊이 느꼈습니다.

영신: 지난여름, 폭염으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소식이 여러 차례 들려왔잖아요.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문제, 사람이 지낼 수 없는 기숙사를 배정해 놓고 비싼 기숙사비를 공제해 가는 문제,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문제 등 현재 한국의 잘못된 이주노동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잘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교육도 보호구도 없는 작은사업장 이주노동자

용현: 사실, E-9 비자를 비롯해 한국에서 취업 허가를 받고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젊고 건강한 상태로 입국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각종 직업병 등으로 건강이 훼손되는 비율이 정주노동자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결국 이주노동자의 건강 손상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일했던 작업장의 문제에서 나온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영신: 네, 당연히 이주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일했던 일터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죠.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을 보면, 안전교육 및 안전설비 미제공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이주노동자들은 외국에서 왔잖아요. 기본적으로 한국어는 모국어가 아니니 당연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언어로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장은 거의 없어요. 한국어로라도 안전교육을 하면 다행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인데도 한국인 반장이 한국말로 시연하며 "잘 봤지? 이렇게 하면 돼"라는 식으로 말하고 마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당연히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런가 하면 안전 장비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얇은 가죽장갑을 제공해야 하는데 저렴한 반코팅 목장갑을 쓰라고 주는 경우, 기계에 장갑이 빨려 들어가며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요. 방진 마스크를 제공해야 함에도 저렴한 일회용 마스크만 제공했다가 호흡기질환에 걸리는 사례도 많이 보았습니다.

용현: 사실 이주노동자들이 현재 일하는 분야는 정주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업무가 대부분이잖아요. 특히 작은사업장일수록 저임금·장시간·고위험 노동의 문제가 중첩돼 나타난다고 알고 있거든요. 반월시화공단은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미숙: 맞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정말 가슴이 턱 막힐 때가 많아요. 반월시화공단만 해도 도금이나 염색, 화학물질을 다루는 소규모 사업장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손가락이 잘리거나 추락하는 재래형 사고뿐만 아니라,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발생하는 직업병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긴 하지만 2005년에는 노말헥산 집단중독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정제로 쓰이는 유기용제에 안전 장비도 없이 노출되어 여러 이주노동자가 하반신이 마비됐던 사건입니다. 이런 사고는 눈에 보이니까 그나마 가시화라도 되지만, 유해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서서히 몸이 망가지는 직업병은 산재 신청조차 못 해보고 묻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도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 봐야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사업주는 "너 일 안 할 거냐, 본국으로 보내버리겠다"라며 재계약이나 체류 기간 연장을 빌미로 협박합니다. 산재 신청도 못 하고, 노동자가 자비로 치료받고 참다가 결국 병을 키워서 출국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아픈 몸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불이익의 사유가 되는, 이 기괴한 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위험의 이주화'를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 무료법률상담소, 반월시화공단에 문 열었다



▲ 안산공동체라디오 단원FM <월담의 노동it수다> 78회 방송 다시듣기.

용현: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월담노조가 올해 5월부터 이주노동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소를 열고 상담 활동을 매주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미숙: 네, 월담노조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경기이주평등연대 등과 함께 지난 5월 17일에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를 열고, 안산 월담 사무실에서 일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반월시화공단은 전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밀집한 산업단지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이주노동자는 10시간, 12시간씩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 법률적 도움이 필요해도 시간을 낼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게다가 한국어 서류나 법률 용어의 장벽 때문에 임금체불을 당하거나 산재를 입어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이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편하게 찾아와서 자신의 노동권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나아가 이주노동자가 소규모 사업장에 갇혀 고립되지 않고, 스스로 권리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영신: 몇 년 전부터인가,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기면, 그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사용자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특히 미등록인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령 "노동자가 돈이 없다고 해서 월세, 관리비, 전기료 대신 납부해 주면, 퇴직금에서 정산해 주겠다고 해서 대신 납부해 줬다. 그런데 정산해 주지 않고 퇴직했다"라거나, "식비(쌀값)를 대줬다"면서 그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 불법이니까 퇴직금 못 줘"라는 식으로 말해서, 고용노동청에 문제제기해서 퇴직금을 받게 되니까, 원래는 자신들이 내주기로 했던 기숙사비 등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주지 않아도 되었던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줘야 했던 퇴직금을 준 게 아까워서요. 상담소에서도 최근 이런 사례가 접수되었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터